

산사 주변 생명과의 말없는 대화



산사의 숲, 침묵으로 노래하다
김재일 지음 | 지성사
1만7000원

“호젓한 숲길을 걸으면서 팔의 흔들림을 관(觀)하고, 내딛는 걸음걸이를 관하고, 발바닥에 느껴져 오는 감촉을 관하고, 시선의 방향과 위치를 관하고, 눈에 들어오는 사물들을 관하고, 콧속으로 들어오는 숲 내음을 관하고, 귀에 들리는 물소리를 관하고, 들고나는 숨소리를 관한다.”

김재일 사찰생태연구소 소장이 말하는 생태기행은 단순한 기행이 아니라 행선(行禪)이다. 열린 몸과 마음으로 찬찬히 명상하듯 주변을 둘러보고 마음으로 기록하다 보면 생태기행은 곧 수행이 된다. 출가 이익이 있는 한 김 소장은 명상가가 되어 사찰 주변의 호젓한 산길을 걸어보라고 조언한다. 여행객이 숲과 만나서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관하다 보면, 어느새 자기가 풀꽃이 되고, 나무가 되고, 물소리가 되고, 산새가 된다. 무아(無我)의 상태에서 산하대지(山河大地)와 하나 되면 그야말로 선(禪)의 경지다.

7년 동안 산사가 있는 이 땅의 산하를 누빈 김 소장은 '108사찰 생태기행_산사의 숲' 시리즈의 두 번째 성과물인 <산사의 숲, 침묵으로 노래하다>에서 '무정물의 말없는 설법'(無情說法)을 듣고 본 경험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겨울 철새들의 지상낙원인 서산 간월암, 울울장장 소나무가 아름다운 절 사천 다솔사, 눈 쌓인 전나무 숲의 고요가 아늑한 부안 내소사를 비롯해 과천 연주암, 경기 광주 장경사, 안성 청통사와 석남사, 원주 구룡사, 공주 감사, 통영 용화사, 곡성 태안사, 김제 금산사, 제주 관음사 등 12개 사찰 주변 생명과의 대화가 에세이처럼 다가온다.

김성우기자

소리 내 읽으면 힘이 되는 이야기들



성전스님 에세이 '지금 여기서 행복하라' '...감하라'

‘미소 스님’으로 통하는 성전 스님이 두 권의 에세이집을 동시에 냈다. 제목이 인상적이다. ‘지금 여기서 행복하라’ ‘지금 여기서 감사하라’ 명령조의 책 제목이지만 따뜻한 힘이 묻어난다. 동글동글한 스님의 미소도 떠오르는 듯하다.

그간 <빈손> <행복한 미소> 등 에세이집과 불교방송의 ‘행복한 미소’(오전 9시 5분~10시)의 진행자로 널리 알려진 성전 스님. 이번엔 낸 에세이집은 행복과 감사의 삶을 이어가는데 힘이 되는 글들로 채워져 있다.

색상이 밝은 삽화들과 어우러진 글들은 짧지만 깊은 여운을 남겨준다. 그래서 이 책은 눈으로 읽으면 맛이 없다. 소리 내서 읽어야 한다. 누구에게 읽어 주는 것도 좋지만 자신이 듣기위해 소리내어 읽으면 마치 스님의 목소리가 귓전을 맴도는 듯하다.

스님은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고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금 그리고 여기가 아니면 언제 어디서든 행복하지 못하고 감사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삶은 언제나 현재형이고 현재는 언제나 ‘여기’에서 이루어진다. 사람이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은 허깨비다.

어제는 갔으니 안 되고 내일은 오지 않았으니 될 수 없는 이치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행복하고 지금 여기서 감사하라는 것이다. 스님의 이야기도 그렇다. 지금 시대에 맞아야 하고 여기서 함께 사는 사람들의 현

실에 닿아 있어야 한다. 산사라는 고즈넉한 공간에서 세속과 떨어진 이야기만 하는 시대는 지났다. 성전 스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한편도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있다. 그것이 삶에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고 새로운 힘을 불어 넣는 비결이기도 하다.

“자연에 깃들어 삽니다” ‘경험이 스승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무는 자신을 비워 그늘 하나를 만듭니다’ 책을 휘리릭 넘기면서 무작위로 뽑아 낸 제목들이다. 성전 스님의 글은 사람과 자연과 생활의 시간과 공간 속에 있다. 그래서 그 속의 행복과 감사함을 알아차리는 길을 안내하는 것이다.

“무거운 사색은 없습니다. 그저 가볍게 읽고 즐겁게 사시면 됩니다.”

스님은 가볍게 말하지만 막상 책을 주는 여운은 전지할 보다는 가볍지만 가벼움 보다는 무게가 있다. 그래서 정호승 시인은 이 책을 두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 걸어야 할 때 내미는 따뜻한 손길 같은 책”이라 했다. 문태준 시인은 스님이 작고 소박한 기도를 매일 읽을 줄리신다는 것을 주목하며 “이 책을 읽고 나니 스님의 웃음이 잘 좋은 이유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성전 스님은 이 두 권 책을 펴낸 기념으로 4월 11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사인회를 가질 예정이다.

개미출판사 · 각권 1만5000원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불교와 문화·예술의 접맥 시도



현대 예술 속의 불교
동대 불교문화연구원 엮음
예문서원 | 1만8000원

부처님 설법은 원래 입음(一音)이어서 한 가지로 말씀하시지만, 중생들은 근기에 따라 제각기 다르게 듣는다고 한다. 불교가 지금까지 다양한 예술·문화 매체들과 접촉하지 못하고 대중의 육구에 다가서지 못한다면 불교는 살아남아 곤란한 학문적 불교에 그치거나 산중불교로 회색화될 지도 모른다.

이런 점에서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박인성)에서 펴낸 <현대 예술 속의 불교>는 비록 논문집 형식의 단행본이지만, 불교와 문화예술의 접맥을 본격 시도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을 만하다.

“마크 아메리카(Mark Amerika)”(이항순 역), ‘사이버공간에 대한 불교적 성찰과 그 대중적 활용’(박수호), ‘불교문화유산의 세계문화 콘텐츠화 전략 연구’(유동환), ‘불교 콘텐츠의 영화산업에서의 활용방안’(정재형), ‘전후 일본만화속의 불교’(마쓰이 류고), ‘백남준의 비디오예술 속의 불교 정신’(윤양호), ‘윤이상음악에서 나타난 불교의 내용’(볼프강 슈파르) 등 9편의 논문을 게재했다.

김성우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Table with 4 columns: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Lists 10 best-selling Buddhist books.

※ 불서총판 윤주사 제공 (02)362-7181



운명은 정해진 것인가?



1990년대 초의 화제작 <소설 토정비결>이 새 단장을 하고 나왔다. 우선 새 단장의 내용을 살펴보자. 당초의 3권 분량을 2권으로 압축했다. 그리고 저자가 2001년에 발표했던 <당초> 5권을 2권으로 개정해 <소설 토정비결>의 2부로 묶었다. 이렇게 전4권으로 재구성된 <소설 토정비결> 1부는 토정 이지함 선생의 생애를 조명하면서 조선시대의 민초들이 열었던 행복한 세상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살핀다. 2부에서는 서산대사와 사명대사의 활동상이 드러마되하게 그려진다.

임연태 기자
소설 토정비결 전4권
이재운 지음|해냄 펴냄|각권1만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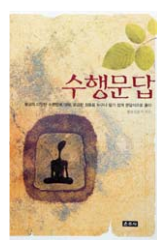
산 자에게 말하는 명상법



“내가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해도, 그대의 사랑이 깊다면 나는 그대를 위해 존재할 것이다.” 1989년 눈을 감은 오쇼 라즈니쉬(Osho Rajneesh)가 사망 2년 전에 한 말이다. ‘깨달은 자유인’ 또는 ‘타락한 성자’라는 극단의 평가를 받는 오쇼는 육신을 버린 2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책을 통해 설법하고 있으니, 그의 말이 거짓은 아닌 것 같다. ‘웃어라’, ‘사랑하라’, ‘이 순간에 살아 있어야’ 말하는 그의 명상법은 배꼽 근처에서 멈추는 숨을 주시하는 위빠사나와 선(禪)을 말하기도 한다. 오쇼에 속지 않는 방법은 먼저 에고를 버릴 것.

김성우기자
숨이 배꼽 근처에서 멈춘다
오쇼 라즈니쉬 · 길원 | 관음출판사 | 1만2000원

수행전문가들의 노하우 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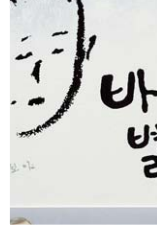


삶이 고달플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탐구하기 마련. 최근의 수행 붐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자신의 근기나 습관, 여건을 무시하고 구도의 길에 나서면 낭패 보기 쉽상이다.

시행착오를 줄이고 정신적, 육체적 손실을 줄이는 방안은 수행자에게 맞는 방법과 바른 스승을 택하는 것. 간화선, 염불, 질, 주력, 사경, 위빠사나, 호흡관, 자비수관, 사불, 정토선 등 이론과 실참을 겸한 수행전문가들의 노하우를 배우는 것은 수행 입문시 필수 관문이다. 각 분야 스님과 재가법사 12인의 문답식 가이드가 구체적이다.

김성우기자
수행문답 | 법보신문사 엮음 | 윤주사 | 1만7000원

동심으로 본 김추기경 어린 시절



“아이들의 순수한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은 하늘의 큰 축복이다.” 지난 2월 16일 선종한 김추기경은 스스로를 낫춰 ‘바보’라 불렀고 늘 어린아이처럼 해맑은 웃음으로 사람과 세상을 사랑했다.

그의 어린 시절을 동화작가 정재봉(1946~2001)이 생전에 소년한국일보에 연재한 동화가 어른을 위한 동화책으로 거듭났다.

작가는 “추기경님이 걸어오신 길을 글로 따르다 보면 미래를 살아갈 사람들에게 용기·희망·정의·빛의 씨앗을 뿌려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바보별’으로 환생한 추기경의 동심이 불심이다. 김성우기자
바보 별 | 정재봉 지음 | 숲출판사 | 9500원

Advertisement for Zen Paradise featuring a portrait of a man and text about a seminar and a book '기우목동가 신간!'.

Advertisement for Chilpo Daewonseo featuring a dragon sculpture and text about a seminar and a book '칠포 대원사 성지 순례지'.

Advertisement for Minsokjukyeom featuring a mountain landscape and text about health products and seminars.

Advertisement for Super EnerTec featuring a water purifier and text about energy and water purification.